



'2시간 탈출 즐탄쇼'에 출연하는 즐탄 멤버들. 왼쪽부터 현민, 이재형, 정진욱.

소위 '댕로(대학로의 속칭) 스타일'로 관객들을 요절복통하게 만드는 공연이 관객을 찾아온다. 일반적으로 대학로 공연은 '객석이 다소 불편하나 내용이 자유롭다'는 평이 있다. 반면 공공 문화공연장에서 펼쳐지는 무대는 객석이 편안하지만 너무 예술적이고 난해하다는 평도 따른다.

대학로와 공공기관에서 열리는 공연의 장점을 갖춘 관객참여형 전천후 개그 무대가 광주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진다.

극단코스모스(대표 박석인)는 '2시간 탈출 즐탄쇼'를 오는 19일(오후 2시, 6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연다. 이번 공연은 개그트리오 이재형, 현민, 정진욱이 주가 돼 2시간 동안 색션을 나눠 단막극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즐탄'은 불빛(줄)이 태어난다(탄)는 뜻의 조어로 '개그계를 밝히는 빛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프닝 공연으로 '개가수(개그맨+가수)'인 즐탄의 1집 앨범의 디지털싱글 '매드독스(2015)'를 선보인다. 이어 관객참여형 코너인 개그 퍼포먼스가 예정돼 있으며, 20년 전 인기를 끌

극단코스모스 '2시간 탈출 즐탄쇼' 서울 대학로 극장서 매진 행렬 개그트리오 뭉쳐 2시간 코미디쇼 19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었던 레트로 개그를 최근 붐고 있는 복고열풍과 맞물려 펼칠 계획이다.

무대에서는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코너도 만나볼 수 있다. 참여하는 관객들에게 개인기를 선물해 준다는 내용. 관객들은 무대에서 웃음 가득한 '강제 프로젝트'를 당하게 되며, 여기에 차트를 연주한 성인가요 '다금바리'를 곁들여 함께 춤추고 노래를 한다. "다다다 다금바리아-사사삼삼 삼계탕이야" 등 중독성 있는 가사를 직접 배울 수 있다.

또 tvn 코미디빅리그의 시즌 1-3에 즐탄이 선보였던 '즐탄 극장'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다. 이들

은 당시 '싸움의 기술', '이름대소동' 등의 코너를 통해 관객들의 인기를 끌었는데, 당시의 레퍼토리를 무대에서 재연한다는 계획.

이외에도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일을 예언하는 '예언마술' 코너 등도 선보이게 된다. 관객들이 즉석에서 참여해 언급하는 '소나무', '미국' 등의 단어를 미리 예상해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연의 대미는 엔딩콘서트가 장식한다. '즐탄밴드'와 5인 여성댄스팀 '이카루스'가 무대에 올라 스탠딩 라이브 형식으로 관객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게 된다.

극단코스모스 박석인 대표는 "이번 즐탄쇼는 대학로 전용극장에서 매진되고 있을 정도로 인기 높은 공연인데 광주에서 공연 사이즈를 늘려 진행하게 됐다"며 "특히 컬투의 두시 탈출 프로그램을 오마주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을만한 내용을 담았으니 마음껏 웃고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1층 7만 7000원, 2층 6만 6000원. 티켓링크에서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시니어 창업'

백지안 작가 '지금은 시니어 지식창업시대' 발간

오늘의 시대를 규정하는 말은 많다. 기후위기 시대, AI시대 등 사회 현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시대를 명명하는 것은 달라진다.

오늘의 시대를 규정하는 말 가운데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는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나 100세 시대라는 말에는 '긴 노후'라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가 함의돼 있다. 하는 일 없이 긴 노후를 보낸다는 것은 재앙이기 때문이다.

가치 있는 노년을 만들어가는 방편으로 지식 창업에 대한 정보 등을 담은 책이 발간됐다.

초등학교 교사인 백지안 작가가 펴낸 '지금은 시니어 지식창업시대' (미다스북스)는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시니어 창업에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최근 정년퇴직을 앞두고 1인 지식창업가로 활동 중이며, 오래 전부터 지식창업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은 물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도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저자는 "1인 지식창업을 알아가며 정보와 자료가 쌓여가거나 나와 같은 초보 지식창업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출발은 제



자신이 부딪친 어려움,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디며 겪는 무지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어 시작한 공부였다"고 집필 동기를 밝혔다.

"당신의 60세 이후를 장악하라"는 부제가 말해주는 책은 1인 지식창업에 성공한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공유한다. 그들이 겪은 실패 사례 등을 분석해 피해야 할 함정과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이제 더 이상 일터에 머무를 필요가 없으며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식 창업이 세상의 변화에 맞춰 시니어들의 삶을 재편하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저는 아이를 키우며 아이들이 내 인생의 감독관이라는 생각으로 매사를 대해 왔다"며 "이렇게 책을 세상에 내놓으니 책 또한 나의 감독관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음악이 흐르는 화폐이야기

K아트, 18~20세기 거장 관현악곡 공연...17일 북구문화센터



K아트의 지난 공연 모습.

<K아트 제공>

세종대왕, 이순신, 신사임당.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화폐 속 역사인물'이다. 어느 나라는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인물을 화폐에 넣는다.

연주단체 K아트(예술감독 박승유)는 오는 17일(오후 7시 30분) 북구문화센터에서 연주회 '음악이 흐르는 화폐이야기'를 펼친다. 이번 공연에서는 18세기 중엽부터 20세기 프랑스 음악가들 중 '화폐'에 새겨진 만큼 명곡을 남긴 작곡가들의 관현악곡들을 만나볼 수 있다.

먼저 벨기에 태생의 프랑스 작곡가 앙드레 그레트리의 오페라가 막을 연다. 벨기에에 1000프랑에 그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데, 관객에게는 '사자왕 리처드' 등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카이로의 대상' 중 발레 장면을 연주한다는 계획.

이어 스위스 20프랑에 담긴 오네게르의 '여름날의 목가'도 감상할 수 있다. 오네게르는 스위스 국

적지인 프랑스에서 거주하며 프랑스 악파를 형성하는 데 일조했으며 세계 1-2차대전 사이에 다양한 작품을 창작했다.

20세기 말 프랑스 20프랑 화폐에 인쇄되었던 인상주의 대표 격 클로드 모네의 노래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대표작 '목신의 오후 전주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베리의 '알토 색소폰과 11개의 악기를 위한 실내합주곡', 에니스쿠의 '간주곡 Op.12-1', 베를리오즈의 '무도회' 등이 마련돼 있다.

지휘와 해설은 박승유가 맡는다. 박 지휘자는 빈 국립음대 지휘과 학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으며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관현악과 등에서 공부했다. 색소폰 연주를 맡는 김태영은 서울대 음악대학 기악과를 졸업했으며 율네수부아 음악원 등에서 수학했다. 무료 공연(예약 필수), 자세한 내용은 K아트 문의. /최류빈 기자 rubi@

도서관 대출, 영화·드라마 대본집 인기

20대 희곡 대출 9.6% ↑ ...대본집 1위는 '헤어질 결심'

국립중앙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도서관 정보나루'에서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대 이용자의 대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최근 1년간 희곡 도서의 전체 대출량은 13만6천 969건으로, 연령대별 대출 비중은 20대가 31.8%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대 이용자의 희곡 도서 대출량은 1년 전인 2021년 7월~2022년 6월보다 9.6%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대가 대출한 희곡 도서 중 대본집 부문에서는 정서경 작가와 박찬욱 감독이 함께 쓴 영화 '헤어질 결심'의 각본집이 1위를 차지했다.

김보라 작가의 '별새', 이나은 작가의 '그 해 우리는' 등이 뒤를 이었다.

서양 고전 부문에서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파우스트', 사무엘 베

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등의 대출이 많은 편이었다. 20대 이용자의 공공도서관 종이책 대출량은 2021년 444만6184건, 2022년 445만3178건으로 비슷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220만3676건으로 집계됐다.

20대의 전자책, 듣는 책(오디오북) 이용도 증가하는 추세로 보인다.

2021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전자책 독서율은 2019년 조사 대비 29.4%, 오디오북 독서율은 84.6% 늘어났다.

이는 40대의 전자책과 오디오북 이용률이 각 4.2%, 7.1%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자세한 내용은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도담: 도서관 빅데이터를 담다' 제4호에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